

주간묵상집

솔로몬의 성전 건축 (2)

왕상 6:1-13 · 6일 묵상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성과가 아니라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 매일 정해진 본문을 소리 내어 읽고, 묵상 글을 읽은 뒤, 적용 질문 앞에 잠잠히 머무십시오. 그리고 그날의 기도로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십시오. 분주함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이 이 묵상의 목적입니다.

제1일 · 구원의 목적지, 주의 처소

오늘의 본문 : 출애굽기 15:13, 17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곳으로소이다

— 출애굽기 15:13, 17

묵상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의 첫 노래는 이미 구원의 종착지를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신 목적은,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로 데려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최종 관심이 어떤 ‘장소’가 아니라 ‘백성과 함께 거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나를 어떤 상태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신앙은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축복이라는 목적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분입니까?

오늘의 질문

나의 신앙 여정의 ‘목적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분이십니까?

기도

주님, 저를 구원하신 목적이 결국 주님과 함께 거하는 데 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 살게 하옵소서. 아멘.

제2일 · 담담하게 기록된 건축

오늘의 본문 : 열왕기상 6:2-7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육십 규빗이요 너비가 이십 규빗이요 높이가 삼십 규빗이며 ...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

— 열왕기상 6:2-7

묵상

이방 왕들은 자기가 지은 신전의 웅장함을 시시콜콜 자랑했지만, 성경은 성전의 규모를 의외로 담담하게 기록합니다. 이 기록만으로는 설계도를 그릴 수 없을 만큼 단편적입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메시지입니다. 성전 건물의 화려함 그 자체는 신앙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얼마나 번듯하게 지었느냐”를 세지 않으십니다. 혹시 나는 눈에 보이는 규모와 성과로 내 신앙을 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의 질문

나는 신앙의 ‘크기’와 ‘성과’를 은근히 자랑하거나 비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

주님, 눈에 보이는 규모로 저를 증명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참된 마음을 보시는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옵소서. 아멘.

제3일 · 건축을 멈추고 들려주신 말씀

오늘의 본문 : 열왕기상 6:11-13

여호와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 열왕기상 6:11-13

묵상

성전 건축이 한창인 순간, 하나님께서 갑자기 개입하십니다. 그런데 “참 잘 짓고 있다”는 칭찬이 아니라, “내 법도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본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건축물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와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지보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 삶의 한복판에 끼어드셔서 하실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질문

지금 하나님이 내 “건축 현장”에 개입하신다면, 어떤 순종을 요구하실 것 같습니까?

기도

주님, 저의 분주한 사역과 계획 한복판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옵소서. 성과보다 순종을, 업적보다 관계를 먼저 구하게 하옵소서. 아멘.

제4일 · 하나님을 부적으로 삼지 말라

오늘의 본문 : 사무엘상 4:3-5, 10-11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 여호와와 그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

이스라엘이 패하여 ...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 사무엘상 4:3-5, 10-11

묵상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지자, 성소에 있어야 할 법궤를 전쟁터로 끌고 나왔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이긴다!” 마치 부적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패였고, 법궤마저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을 특정 물건이나 장소에 가두고 내 뜻대로 부리려는 시도 - 그것이 곧 우상숭배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앙의 형식을, 혹은 직분과 봉사를 ‘내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의 질문

나는 하나님(또는 신앙의 형식)을 내 필요를 위한 ‘수단’으로 삼은 적은 없습니까?

기도

주님, 주님을 저의 도구로 삼으려 했던 완악함을 회개합니다. 주님은 제가 부리는 분이 아니라 제가 순종하며 따르는 주(主)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제5일 ·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

오늘의 본문 : 사도행전 17:24-25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 사도행전 17:24-25

묵상

바울은 아덴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갇히지 않으신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지으신 분이시며, 오히려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입니다.

내 신앙이 건물과 형식과 성과에만 매여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너무 작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을 나의 작은 틀 안에 가두려 했던 어리석음을 오늘 내려놓읍시다.

오늘의 질문

내가 하나님을 가두어 두었던 ‘작은 틀’(장소·형식·습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기도

광대하신 하나님, 주님을 저의 작은 상자 안에 가두려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옵소서. 온 우주의 주 되신 주님을 크게 예배하게 하옵소서. 아멘.

제6일 · 참 성전 안에서 누리는 안식

오늘의 본문 : 요한복음 2:19, 21 · 마태복음 11:28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 그러나 예수
는 성전 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 요한복음 2:19, 21 · 마태복음 11:28

묵상

참 성전은 솔로몬의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성전은 헐렸다가 사흘 만에 다시 서졌고, 우리는 그 몸에 연합되어 산 돌로 지어져 갑니다(벧전 2:5).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억지로 짊어진 무거운 종교의 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종교적 거품을 걷어내고,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에서 흘러나오는 기쁨과 참된 행복을 누리십시오. 주님이 지금 부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오늘의 질문

이번 한 주, 내가 내려놓아야 할 “무거운 종교의 짐”과 붙들어야 할 “그리스도 안의 안식”은 무엇입니까?

기도

참 성전 되신 예수님, 저의 모든 수고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억지가 아니라 사랑과 기쁨에서 흘러나오는 예배로 이 한 주를 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